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사상의 《자유》의 반동성

박 명 남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사상의 《자유》의 반동성을 폭로비판하는것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상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사상의 <자유>란 자본주의사회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누르고 부르조아반동사상을 퍼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들의 책동을 <자유>의 간판으로 분식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구호이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258페이지)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사상의 《자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누르고 부르조아반동사상을 퍼뜨리기 위한 책동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구호라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우선 저들에게 위협하다고 인정되는 진보적인 사상에 대한 탄압을 공공연히 감행함으로써 저들이 말하는 사상의 《자유》의 기만성을 스스로 드러내놓고있다.

새것, 진보적인것이 승리하고 낡고 반동적인것이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그러나 낡고 반동적인것은 새것, 진보적인것에 스스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력사적으로 볼 때 진보적인 사상의 자유로운 발전을 허용한 착취계급, 반동적지배계급은 없었다.

반동적인 착취계급이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그 발생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행한 책동가운데서 사상탄압은 가장 악랄한것이였다.

오늘 반동적부르조아계급은 자본주의사회를 민주주의사회로 분식하기 위하여 진보적 사상을 일정하게 허용하다가도 그것이 저들의 통치체제에 조금이라도 위협으로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차없이 탄압한다.

진보적인 사상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정책은 여러가지 형태로 감행된다.

제국주의자들은 말로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있는것처럼 광고하고있지만 진보적인 사상의 신봉과 선전은 극력 억제한다. 사실 자본의 권력이 모든 선전수단과 교육수단을 장악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진보적인 사상의 자유가 보장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적통치배들은 물질문화적수단의 독점으로 진보적사상의 자유를 억제하는 한편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제한, 박해, 탄압정책을 실시한다. 그것은 사상의 《자유》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요란스럽게 떠드는 미국에서 더욱 우심하다.

1950년에 미국국회에서 채택된 맥카란법이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실례의 하나이다. 법제안자들인 상원의원 맥카란과 하원의원 우드의 이름을 따서 맥카란-우드법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극악한 반공법은 《내부적안전》을 보호하며 《음모》 및 《간첩행위》와 투쟁한다는 구실밑에 공산주의적단체라고 부르는 진보적단체들에 대한 탄압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공산주의단체 등 사람들은 이름과 주소, 재정 및 조직활동의 연간결산자료를 사법성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어있다. 그리고 국제여행권을 가질 권리,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직할 권리, 국방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할수 있

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의 간판밑에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탄압책동의 단편에 불과하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이 보급되는것을 총칼로 탄압하고있는 사실 특히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고립압살책동을 수십년동안 악랄하게 감행해오고있는 사실도 그들이 웨치는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황당한것인가를 스스로 폭로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사상의 《자유》에 대하여 떠들어댔으로써 부르조아반동사상을 적극 류포시키려는 음흉한 목적을 가리우고있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 범람하고있는 각양각색의 사조들은 다 부르조아사상의 각이한 형태와 표현들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서 반동적인 사상의 《자유》정책의 산물이다.

부르조아사상은 자본주의사회의 략탈성과 반인민성을 정당화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켜 그들의 투쟁진출을 가로막는 사상독소로서 그것을 널리 퍼뜨리는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적통치배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실현에 리용되고있는 구호가 바로 사상의 《자유》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반동적지배계급은 사상의 《자유》라는 미명밑에 출판물, 라디오, TV를 비롯한 선전수단의 대부분을 장악한 유리한 지위를 리용하여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킨다.

실례로 미국에서 일간신문의 3분의 2는 독점체들이 쥐고있으며 주요방송망, 출판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대독점체인 록펠러는 금권을 리용하여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편집자, 기자의 대다수를 틀어쥐고있으며 《콜롬비아방송회사》와 《NBC방송회사》도 다 저들의 대변인들을 통하여 장악하고있다.

출판보도수단을 독점한 자본가계급은 특권적지위를 악용하여 출판보도물편집방향과 내용전반을 자기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진행한다. 한편 대다수출판보도물들은 대독점체들의 종속기업으로 존재하거나 그 재정적후원을 받고있으므로 필연적으로 부르조아계급의 어용나팔수로서의 역할을 놀기마련인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사상, 인간중오사상, 인종주의사상, 반공사상 등 각종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이 사회에 만연되어있으며 그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막대한 저해를 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사상의 《자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구호라는데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공공연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기에 앞서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를 먼저 침투시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해당 나라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침략적목적을 손쉽게 달성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우선 사상의 선전과 선택은 《자유》라고 떠벌이며 저들의 반동적인 사상을 들이밀기 위한 대대적인 선전공세를 벌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출판보도물, 문학예술을 통한 방법, 《교류》와 《협력》의 간판, 심리전의 수법 등 각종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해당 나라 인민들속에 저들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조성하고 그들의 반제자주의식을 마비시킨 다음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 걸쳐 대대적인 예속화정책을 실시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사상의 《자유》의 미명밑에 사상문화적침투를 강도적인 수법으로 적용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만일 저들의 반동적인 사상공세가 해당 나라로부터 저지당하거나 억제당하게 되면 《자유》가 없다느니,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인권을 탄압한다느니 하면서 법석 고아대며 그 《문제》를 국제화하고 정치군사적간섭의 구실로 삼는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와 정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대적인 비난감싸니아를 벌리고있다.

사상의 《자유》의 미명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의 주되는 대상은 사회주의나라들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력사무대에 등장한 순간부터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말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적용하여왔으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것은 사상문화적침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선전공세의 주요내용도 사회주의사회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것이며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노리는것도 사회주의내부에 《자유》사상을 불어넣고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변질시켜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이행전략》을 실현하는것이다.

실지로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사상문화적침투로 하여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은 사상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를 허용하고 끝내는 자본주의에로 복귀되는 사태를 빚어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자유유럽방송》을 없애고 《자유아시아방송》을 새로 설치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는것도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사태를 재현해보려는데 그 반동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듯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사상의 《자유》는 그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반인민성과 기만성, 침략성으로 일관되어있는 반동적인 사상이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라는 미명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의 반동적본질을 똑바로 알고 그에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할것이다.